

-프롤로그

#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

2008년, 대한민국에 낯선 단어가 풀씨처럼 날려 왔다. 종교편향. 종교편향. 종교편향...

그간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는 아주 미미하게 쓰였다. 그러나 이 풀씨는 '다종교 사회'라는 토양에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파고들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마침내 무성한 줄기와 잎으로 위세를 떨치더니 아깝싸,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말았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장로라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말했던 그의 과거 행보가 새 정부 들어 '악발 좋은 비료'가 되었던 것이었을까? 공직 사회에서, 교육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지어 투표소와 경찰서, 지도 만드는 곳에서도 '종교편향'의 뿌리는 깊고 줄기는 튼튼하고 잎은 무성했다.

그래서 불자들은 분노했다. 헌법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고 민족문화의 중심이 부정되고 특정한 권위에 편승해 활개를 치는 '종교편향'을 강력히 거부하고 규탄하며 경찰청장의 퇴진과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존중의 미덕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겠느냐, 그것이 종교의 본령이냐고 20만 불자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법회를 가졌고 상설감시기구를 발족했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 했다. 그러나 권력자의 사과를 미온적이고 세상의 여론은 차가웠다.

밖으로 거부의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동안 안에서는 자성의 차분한 목소리도 일어났다. 지난 반세기, 불교계의 행보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서 진정 민족문화를 영도해 온 종교로서 변화의 세상과 함께 호흡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반성하지는 목소리도 '종교편향'이라는 풀씨처럼 뿌리를 내렸다.

화살이 날아와 몸을 맞았다면 화살을 뽑고 치료하는 것이 급한 일이지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고 누가 쏘았는가를 따지는 일이 바쁜 것은 아니다. 차라리, 어찌다가 화살을 맞았는가를 들여다 본다

## 다종교 사회 '존중의 미덕' 사라지면 공멸의 길 분노에 얽매어 있기보다 차분한 내적 자성 필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는가? '종교편향'의 풀이 더 무성해지기전에, 화살을 뽑는 심정으로 우리의 허술한 방어 자세를 고쳐야 한다. 다종교 사회라는 대지는 변할 수 없다. 종교라는 바람과 햇볕도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는 것을 두드리는 어리석음보다 변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것이 현명하다.

더 강한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맞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이켜 보고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 분노를 조율해 차분한 내적 자성으로 민족의 진정한 영도세력이 되기 위한 지혜 모으기 지금 불교계는 그 지혜의 불사에 나설 때다.

화살을 뽑는 심정으로, 불사를 하는 마음으로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활동과 표현의 범위를 짚어보고 지난 시간 불교계가 걸어 온 길에 종교편향의 풀씨가 어떻게 착상했는가를 들여다 보자. 그리고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향후 행보를 전망해 보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임연태 기자 [miant@hanmail.net](mailto:miant@hanmail.net)



# 종교차별 이명박은 사과하라

14주년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지**입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대한불교 (禪) 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베스트하게작  
신간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쪽쪽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